

## 무지개

워즈워스 (William Wordsworth)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인생이 시작되었을 때 그랬고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그리하며  
늙어서도 그리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게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살아가는 나날이  
자연에 대한 경외로 이어질 수 있다면.

My heart leaps up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 am a man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Or let me die!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

## 가을의 노래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 I

머지않아 우리는 차가운 어둠 속에 잠기리;  
안녕, 너무 짧았던 우리 여름의 찬란한 빛이여!  
내겐 벌써 들린다, 음산한 소리 울리며  
안마당 돌바닥 위에 떨어지는 장작 소리.

분노, 미움, 떨림과 두려움, 그리고 강요된 고역,  
이 모든 겨울이 이제 내 존재 속에 들어오면,  
내 가슴은 지옥 같은 극지의 태양처럼  
얼어붙은 붉은 덩어리에 지나지 않으리.

나는 듣는다, 몸을 떨며, 장작개비 떨어지는 소리 하나하나;  
교수대 세우는 소리도 이보다 더 음산하지 않으리.  
내 정신은 지칠 줄 모르고 처대는 욕중한 망치질에  
허물어지고 마는 탑과도 같다.

이 단조로운 울림소리에 흔들려  
나는 어디선가 급히 관에 못박는 소리 듣는 것 같다.  
누구를 위해서인가?—어제만 해도 여름, 그러나 이제 가을!  
저 신비한 소리는 출발을 알리는 신호처럼 울린다.

### II

사랑하오— 그대 가름한 얼굴에 감도는 푸르스름한 빛을,  
다정한 미녀여,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씁쓸하오.  
그 무엇도 당신의 사랑도, 규방도, 난롯불도  
내겐 바다 위에 빛나는 태양만 못하오.

그러나 사랑해 주오, 다정한 님이여! 어머니가 되어주오,  
은혜 모르는 사람, 심술궂은 사람일지라도;  
애인이여, 또는 누이인 님이여, 찬란한 가을의,  
아니면 지는 태양의 짧은 감미로움이나마 되어주오.

그것은 잠시 동안의 노고! 무덤은 기다린다, 굴주린 무덤은!  
아! 제발 내 이마 그대 무릎에 파묻고,  
작열하던 하얀 여름을 아쉬워하며,  
만추의 노란 다사로운 빛을 맛보게 해주오!

## I

Bientôt nous plongerons dans les froides ténèbres ;  
Adieu, vive clarté de nos étés trop courts !  
J'entends déjà tomber avec des chocs funèbres  
Le bois retentissant sur le pavé des cours.

Tout l'hiver va rentrer dans mon être : colère,  
Haine, frissons, horreur, labeur dur et forcé,  
Et, comme le soleil dans son enfer polaire,  
Mon coeur ne sera plus qu'un bloc rouge et glacé.

J'écoute en frémissant chaque bûche qui tombe ;  
L'échafaud qu'on bâtit n'a pas d'écho plus sourd.  
Mon esprit est pareil à la tour qui succombe  
Sous les coups du bélier infatigable et lourd.

Il me semble, bercé par ce choc monotone,  
Qu'on cloue en grande hâte un cercueil quelque part.  
Pour qui ? - C'était hier l'été ; voici l'automne !  
Ce bruit mystérieux sonne comme un départ.

## II

J'aime de vos longs yeux la lumière verdâtre,  
Douce beauté, mais tout aujourd'hui m'est amer,  
Et rien, ni votre amour, ni le boudoir, ni l'âtre,  
Ne me vaut le soleil rayonnant sur la mer.

Et pourtant aimez-moi, tendre coeur ! soyez mère,  
Même pour un ingrat, même pour un méchant ;  
Amante ou soeur, soyez la douceur éphémère  
D'un glorieux automne ou d'un soleil couchant.

Courte tâche ! La tombe attend ; elle est avide !  
Ah ! laissez-moi, mon front posé sur vos genoux,  
Goûter, en regrettant l'été blanc et torride,  
De l'arrière-saison le rayon jaune et doux !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 세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짹짹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짹짹대면서  
갈쭈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세상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

그 젊은이는 맨방바닥에서 잠을 잤다  
창문으로 사과나무의 꼭대기만 보였다

가을에 간신히 작은 열매가 맺혔다  
그 젊은이에게 그렇게 사람이 찾아왔다

그녀가 지나가는 말로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  
그는 그때까지 맨방바닥에서 사랑을 나눴다

지하 방의 창문으로 때 이른 낙파가 지나갔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여자를 기다렸다

그녀의 옷에 묻은 찬 냄새를 기억하며  
그 젊은이는 가을밤에 맨방바닥에서 잤다

서리가 입속에서 부서지는 날들이 지나갔다  
창틀에 낙파가 쌓인 어느 날

물론 그 여자가 왔다 그 젊은이는 그때까지  
시두고 한 번도 갈지 않은 요를 갈았다

지하 방을 가득 채우는 요의 끝을 만지며  
그 젊은이는 천진하게 여자에게 웃었다

맨방바닥에 꽃무늬 요가 펴졌다 생생한 요의 그림  
자가

여자는 그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과나무의 꼭대기,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